

2018년 12월 14일(금요일)
제2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문화예술의 도시 대전을 위한 제언

우애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 때문에
인간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창의적인 문화 관련 직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망도 지배적입니다.

문화예술 산업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우리 대전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전의 대표적인 수식어는
첨단과학의 도시인데요.

본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대전은
과학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도심 곳곳에 200에서 3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연예술가가 있어도
그 끼와 재능을 펼칠 장이 없다면
빛을 발휘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모든 예술가가 예술의 전당의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전문화예술발전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에는 예술의전당을 포함하여
총 67개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50만 도시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예술을
펼칠 무대가 많이 조성된다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 없이
더 많은 시민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되고,
대전에 문화예술의 기반을 풍성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콘서트전용홀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음악회 전용 음악당을 말하는 콘서트전용홀은
순수음악 공연에 최적화된 공연장을
말하는 것으로써,

공연의 질을 높이는 일은 물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콘서트전용홀의 구축은
품격 높은 공연의 유치로 이어져
문화예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셋째, 대전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창작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전의 문화예술 시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르는 공연의 상당수가
서울 등 타 도시에서 창작, 기획된 공연이거나,
타 지역의 예술가가 펼치는 공연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이 조성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전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작품이
단 한 건도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페라나 뮤지컬과 같은 음악은 물론이고,
연극, 무용, 미술 등 장르에 관계없이
대전의 콘텐츠를 활용한
장기적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발굴과 창작에
대전시가 적극 앞장서 나가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행정과 예술경영 전문가의
발탁과 기용이 필요합니다.

예술단과 공연장, 각종 문화관련 조직은 물론
공공행정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에
예술행정과 예술경영의 전문가를 배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업성 판단 업무는
그 시기와 규모, 방향성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자리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인재발굴과 기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대전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